

# 丁茶山の 牧民心書 이야기(4)

(지난호에 이어)

2. '節其官俸 以還士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자기의 관봉(官俸)을 절약하여 그 고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고, 자기 집 수확물을 풀어서 친척들을 도와주면, 아무런 원한(怨恨)이 없을 것이다.'

율곡(栗谷)의 종손(從孫) 이집(李僉)이 여러 차례 군(郡)과 현(縣)을 맡아 다스렸는데, 벼슬자리에 있을 때 서동생(庶弟)인 구(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간사케 하였다. 그런데 흉년이 드는 해엔 집(僉)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당부했다. '집안에 저 축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먼저 친족들에게 배분고, 나머지가 있으면 동복(僮僕)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누군가가 그에게 '흉년이 든 때를 타서 전택(田宅)을 늘리시지요.' 하고 권하자, 집(僉)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도모하여 저들을 굶주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는 하양(河陽·慶北 慶山郡)에 있는 고을(高)으로부터 돌아와 그 동안 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장리(長利)로 빌려 주고 받았던 문서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하인을 곤장쳤다.

수법(守法)

1. '凡國法所禁 形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

무릇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과 형률(形律)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발발 떨어 두 두려워하여,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범하지 말라.'

한 가지 일에 부닥칠 때마다 반드시 국전(國典)을 돌이켜보되, 국법을 어기고 형률에 어긋나는 것은 결단코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일처리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監司)가 이것을 알면 나를 꺾어놓지나 않을까, 어사(御使)가 이 일을 알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하고 돌이켜보고 나서, 결코 그럴 이유가 없음을 확신한 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법에 구

애받음으로써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수도 있다. 다소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입는 사람이 없는 경우, 수령의 권한으로써 그 방법을 운용해도 좋다. 자기의 마음의 결정이 천리(天理)의 공(公)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법에 얽매어 지킬 것은 없으며, 그것이 사사로운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

2.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고을의 관례라는 것은 그 고을의 법이므로, 그 중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키도록 하라.'

각 고을의 모든 고(庫)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를 절목(節目)이라 한다. 그런데 절목은 당초에 만들어질 때에도 잘못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오는 수령들이 어지럽게 더하고 줄여 고치면서 사사로운 생각으로 손질함으로써 제계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조목이 해마다 더하고 달(月)로 불어나니,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곡산부(谷山府)에 있을 때에 민고(民庫)의 절목(節目)을 상세히 만들었더니, 아전과 백성이 모두 기뻐하기에 그 법례를 통용시키고자 하였다. 마침 영성군(靈城君) 어사(御使) 박문수(朴文秀)가 만들어 정한 절목도 나의 안(案)과 같음을 확인하고는, 그것이 크고 작은 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예제(禮際) : 교제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예의

3. '禮際者 君子之所慎也 恭近於禮 遠恥辱夜.'

예제는 것은 군자가 중히 여기는 것이니, 그 공손함이 예법에 맞아야 목욕이 없을 것이다.'

높고 낮음에는 등급을 두고, 옷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구별을 두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의(義)이다. 그래서 수

레와 복장의 차림이 다르고, 깃발의 문채(文彩)를 달리하여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관(下官)은 자기의 본분을 지켜 상관(上官)을 섬겨야 하는데, 나는 문관이고 상대는 무관이라 하여 그를 팔시해서는 안 되며, 나는 세력이 강하고 상대는 힘이 약하다 하여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나는 현명하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나는 늙었는데 그는 젊다 하여 서글퍼 해서도 안 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운수하여 예의를 잃지 않으며, 화평하게 하여 뒤틀리고 막힘이 없게 하면, 정과 뜻이 서로 통할 것이다.

4.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 焉可也.'

상사가 이교들을 따져 다스리는 경우, 수령은 그 다스림이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죄가 본읍(本邑)에 있어 상사가 그것을 추궁하여 다스리는 것은 이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간혹 무단히 생트집을 잡아 이치에 맞지 않는 횡포를 부리더라도, 내가 그의 아래 지위에 있으니, 역시 순종함이 좋다. 상사의 뜻이 실수로 인한 것일 뿐 의도적인 악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수령인 나는 소장(尙穉)을 보낼 때에 그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대한 처분을 빌면서 나의 수하(手下)인 이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인즉, 이것이 충후(忠厚)하고 겸손한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뜻이 의도적으로 나의 이교들을 해치려는 것인 경우에는, 말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형문장(公文文狀)·마을의 戶長·吏房·首領의 호소문을 받아, 나의 이교가 죄수로 호송될 때에 함께 보내되, 나[수령]의 사직서를 동봉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상관이 진실로 잘못된을 사과하면 계속해서 수령의 일을 보되, 끝내 무례하면 세 번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임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b>■ 총재단회비</b> △권우근(고문) 100만원  <b>■ 중무위원회비</b> △권영창(영주) 20만원 △권혁무(대구) 20만원 △권혁근(대구) 20만원	△권혁재(서울) 20만원 △권기웅(문경) 10만원(일부) △권순걸(영주) 20만원 △권기덕(안동) 20만원 △권경호(대구) 20만원  계 150만원	<b>■ 대의원회비</b> △권효준(영덕) 10만원 △권병윤(영덕) 10만원 △권호규(안동) 10만원 △권태현(부산) 10만원 △권혁구(강서) 10만원 △권흥식(의성) 10만원  △권상택(광주) 10만원  계 70만원  <b>합계 320만원</b>
--	--	--

### 권혁세 금감원장

## 대출모집인 종합대책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출모집인 문제와 관련 "실태 점검을 마치는 대로 오는 2분기 중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사 창구직원과 대화"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업권별로 대출모집인들의 영업실태가 어떤지, 예로점은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릴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피해를 낳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대출을 위주로 모집인들의 영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년보다 13조원이나 늘어난 52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인 숫자에 비해 대출실적이 과다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 "점검을 마치고, 2분기 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업무 시간의 30분 늦추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장은 "세계적으로 서머타임 등을 적용해 근무시간을 당기는 게 추세"라며 "현재 우리 국민의 생활 리듬이 거기(오전 9시 영업시작)에 맞춰졌는데 이를 늦추는 것은 신중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012. 4. 3. 박종진 기자 인용>

### 기행문

##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난호에 이어) 줄리우스 씨저의 신전 우리들은 씨저가 전황 보고를 하러 가던 길을 거닐며 빼어난 앙상하게 남아있는 개선장군을 위하여 만든 개선문도 보았다. 줄리우스 씨저의 신전은 씨저의 시신을 화장했던 장소에 아우구스투스 대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세워진 건물로 신격화된 인간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신전이라고 하였다.

코스메딘의 성모 마리아 성당 현관에 있는 진실의 입은 강의 신 홀로비오의 얼굴을 조각한 대리석상으로 서서 거저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 모두가 차례로 줄을 서서 그 상의 입에 손을 넣고 정직성을 시험하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25) 베네치아 광장 베네치아 광장에 앞에 서 있는 통일 기념관을 로마에서는 비포리아노라고 부르는 신 고전 양식이며 통일 50주년기념으로 1920년에 건립했다고 하였다. 기념관 아래의 무명용사의 제단에는 여신상이 벽에 부조로 되어있고 무명용사의 무덤은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다. 이 경비는 육, 해, 공군이 교대로 한데 오늘날 육군이 경비를 맡고 있었다. 전체의 모습이 흡사 그리스신전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광장의 왼쪽구석의 기념원주(Colonna Traiana)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기원 후 110년에 건립된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26) 물의 여왕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는 니콜라 살비에 의해 1732년부터 1762년까지 3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고 한다. 신들과 두 해마가 어울린 커다란 조개 위에서 법륜신이 위엄 있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대리석 조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트레비 분수에 공급되는 물은 '처녀의 샘'에서 흘러들어 온다고 하였다. 전쟁에서 돌아온 목마른 병정에게 한 처녀가 샘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샘이 바로 '처녀의 샘'이라고 했다. 트레비 분수에 공급되는 물은 아우구스투스 대제 때의 집정관인 아그립파에 의해 건설된 고기수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1991년 9월 18일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때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던지면 부부가 함께 다시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던진바가 있었다.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 왔으니 그 뜻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봐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하였다. 그러나 나는 기회를 봐서 다시 부부가 동반하여 이곳에 오기를 기원하는 동전을 던지며 아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27) 광장의 중심 스페인 광장 로마제국 시에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이 이 광장 주위 집들에서 기거를 했다고 한다. 스페인 광장의 계단은 1723년 프랑스의 교관의 기부금으로 세워졌는데 광장의 이름은 스페인 대사관이 위치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스페인 광장의 계단에서 영하배우인 오드리 헛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하여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것이 유행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잔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서 스페인 계단에 앉아 먹어보지 못하고 말았다. 계단 앞쪽의 낮은 곳에 있는 조각배 모양의 분수 앞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 양쪽으로는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 골목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 시간을 주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 일본의 신사이바시(新大塚) 골목과 같이 복잡한 거리를 거닐어 보았다. Dior Prada, Bvlgari Damiani 등의 여러 상점을 구경하다가 길거리에서 키가 큰 검은 옷을 입은 집시도 볼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오면서 보니 성모마리아 성당, 요한 성당, 계단 성당 등 눈만 돌리면 성당이고 분수, 궁전, 탑, 광장도 모두가 유적들이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 '미모사'라는 노란 꽃을 들고 다니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진(晉)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서진(西晉)의 두 황제가 후조(後趙)에 잡혀가서 서진이 멸망하자 그 세력이 남하하여 동진(東晉)을 세우고 35년

쯤 되는 때였다. 동진에서 군사세력을 갖춘 환온(桓溫)이 모처럼만에 잃어버린 장안을 탈환하기 위하여 북벌을 감행했다. 이때는 서진(西晉)을 멸망시켰던 전조의 뒤를 이은 후조(後趙)도 멸망하고, 새로이 등장한 부견(苻健)이 전진(前秦)을 세운지 불과 4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동진으로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었다. 그 위에 후진의 재상을 지낸 요익중(姚弋仲)은 사신을 동진에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 달라고 까지 요청하였다. 이때에 환온은 북벌(北伐)하게 할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되었다. 오히려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은호(殷浩)가 북벌하러 나섰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환온은 은호가 북벌에 실패한 것을 꼬투리 삼아 그를 실각시켜서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전진

(前秦)을 정벌하러 나갔다. 환온의 군대는 전진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오랜 만에 잃어버렸던 장안(長安)의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남전(藍田)에서의 어려운 싸움 끝에 전진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승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파상(灊上)에 이르렀다. 이제 파수(灊水)만 건너면 장안을 수복하게 된 것이다. 장안 주변에 있는 군현(郡縣) 사람들은 모두 환온에게 와서 항복하였다. 또 백성들은 다투어 술과 고기를 싸들고 환온의 군사들에게 와서 환영하였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관군(官軍)의 모습을 보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감격하였다.

이들이 관군이라고 부른 군대는 동진 환온의 군대였다. 그동안 호족(胡族)군대만 보이왔기 때문에 한족(漢族) 왕조인 동진의 군대를 보자 옛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옛날 서진시절처럼 한족(漢族) 왕조가 다시 장안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북해에 사는 왕맹(王猛)이라는 사람이 환온을 찾아갔다. 왕맹은 젊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였고, 또 권력자이건 아니건 세상의 형식에는 걸림 없이 다만 큰 뜻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왕맹은 환온이 함곡관을 넘어서 장안에 거의 가까웠다라는 말을 듣고 갈포(襦袍, 솜 옷) 옷을 입고 환온을 찾은 것이다. 왕맹은 환온에게 와서 말을 하면서 도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물거리는 이를 잡아며 이야기를 했다. 환온은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호걸(豪傑)들이 찾아오지 않는지를 왕맹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맹은 간단히 대답했다. '장안이 지척에 있는데, 파수를 건너지 않으니,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동진을 위하여 온 것인지 권력을 잡으려는 다른 방법의 하나로 군사를 끌고 온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온이 왕맹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그는 환온이 동진을 찬탈(篡奪)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다. 그 후에 왕맹은 전진의 황제 부견(苻健)을 도왔고, 부견이 북방을 통일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환온은 인재를 보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졌지 한족(漢族) 왕조인 진(晉)이 잃은 땅을 수복하는데 뜻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도 잃고 또 자기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환온 같은 우를 범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널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 <다음호에 계속>